

# “남북관계 역할 있으면 하겠다”

**반기문 사무총장, 김 통일장관 조찬회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남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조찬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장부도 제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당사자간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옆에서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려 한다”면서 “주 유엔 북한대사와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이어 “북핵문제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관계가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 더 진전되도록 하자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루빨리 남북대화가 재개

돼 남북이 힘을 합쳐서 세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며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무총장이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총장께서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반 총장의 ‘역할’과 관련, 북한 방문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반론적으로 가능한 역할을 할 필요에 대해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인국 주 유엔 대사와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특보, 통일부의 김천식 통일정책국장, 김정수 인도협력국장, 외교부의 오 준 다자외교조약실장과 송영완 국제기구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반 총장은 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 이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인권을 주제로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중 가족과의 만남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7일 오전 이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안내로 조찬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11~12일째 재개

**중단 9개월만에... 핵폐기·검증 방법 등 협의**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이번 주내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이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7~9일)가 끝난 직후인 이번 주 후반에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며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들의 의견을 조율해 7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중국은 6자 수석대표회담을 10일 개최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에서 G8일정을 감안해 하루 이를 정도 늦춰 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테니스와인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일이나 12일째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도 5일 G8정상회의의 프레스센터 개관식에서 기자들에게 “G8 정상회의가 끝난 뒤 그렇게 머지않은 시일내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주중 개최를 시사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을 기다리며 작년 10월 초 제6차 2단계 회의 이후 9개월여 간 열리지 않아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는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 주로 협의하고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과 3단계 핵폐기 일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6자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실무그룹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은 9일이나 10일째 베이징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베이징에 모인 기회에 중요한 실무그룹 회의도 함께 열리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석대표 회동 이전에 북·미 등을 비롯한 양자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北 플루토늄 검증된 핵포기 여부 판단”

**라이스 미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검증한 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에 출연, “우리(미국)는 북한의 말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신고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방향을 거듭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은 여기까지 오는 데가 연료용 중유 13만과 이미 오래전에 법적 기준을 충족한 테러지원금 명단 삭제, 상징적인 제재 해제 등을 얻었다며 북핵 협상과정에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는 또 북한에 대한 인권위반 관련 제재와 확산관련 제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G8 정상회의의 日 도야코서 개막

**지구 온난화·원유값 급등·북핵 문제 논의**

제 34회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7일 개막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 원유·식량가격 급등 문제 등 현안들이 중점 논의되며 회의의 마지막날인 9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의장선언을 발표한다. 온난화 대책으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장기 목표 설정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던 지난해 독일 정상회의의 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 초점이다. 또 G8 정상들이 원유·식량 가격 안정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합의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인 후쿠다 총리는 6일 도야코를 찾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는 것으로 외교 행보를 가속화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7일 오후 G8

등 정치문제를 주제로 논의가 집중 진행된다. 정치 문제에서는 북핵 문제와 이란의 핵개발 저지 등 비확산 문제, 테러 대책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6일 G8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 8~9일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미·러시아 등 7개국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8~9일 G8 확대정상회의의 참석차 일본 도야코를 1박2일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인도,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정상들과 순차적으로 양자 정상회담, 또는 간략한 정상간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표명하고 교토의

정서 기한인 2012년까지의 이행 목표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7개국 정상들과의 회담, 환담을 통해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는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번 도야코 회담을 거쳐 다음달 5, 6일 부시 대통령의 방문 등으로 4개월만에 3차례 회동

# 개성공단 온라인 출입신청 시스템 가동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을 구축,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www.kid-mac.com)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출입현황 통계 관리 등이 가능한 ‘윈

스톱’ 전산시스템이다. 관리위는 앞서 6월 한 달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7월부터 개성공단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위는 또 향후 이 시스템을 통

일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출입신청자들이 직접 출입신청서를 만들어 이메일이나 웹하드에 올리면 관리위 담당자들이 일일이 신청서류를 취합해서 북측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왔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한번에 신청서를 등록하고 취합할 수 있게 돼 입주기업들의 편의는 물론 관리위의 업무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  
**‘08년 7월 여름방학 대특강**  
 7월 19일 전진반  
**개강 7월 1일**  
**여름방학 EVENT**  
 합격률 1위 기념  
 조기접수 인원 행사  
 우수정액 10% + 교재 30% 할인  
 0포기합격 기간 1개월 29만원(한시)  
 - 선착순 200명 무료 배움의 길을 위한  
 인터넷합격반 2개월 29만원(한시) 대비  
**동부고시학원** www.donghugosil.co.kr 02-233-0609  
 시애틀의 거리 지름길 구 단의

**ANYCHE CHAIR**  
  
**Anyche**  
 기술과 편리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무인정액제  
 http://www.anyche.com/ and www.anyche.com/anyche  
 1000-2000-2000